

7. 만화의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족 간에도 정직해야 한다.
- ② 가족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③ 가족 간에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④ 가족 내에서도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가족 내에서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8. <보기>의 두 자료를 활용하여 단계별 글쓰기를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005년 버려진 개 (단위: 마리)			
구별	버려진 수	구별	버려진 수
◇◇구	1001	◁▷구	590
△△구	764	●●구	579
▼▼구	728	▷▷구	550
○○구	694	◆◆구	548
☆☆구	671	▽▽구	536
★★구	622	◀▶구	534

사업가 ○○씨는 탈세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사람들은 ○○씨가 잘못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많은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워했다.

자료 해석 ○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결과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유추 적용 ○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우승해야 한다는 운동 선수의 경우를 사례로 든다. ㉡

문제 설정 ○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한다. ㉢

문제 해결 ○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적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

제목 확정 ○ 글의 제목을 '자신만을 중시하는 세대'로 정한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인터넷 독서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한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 비유법을 사용할 것
 -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드러낼 것

독서감상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번호	글쓴이	내용
997	니그네	어리석음에서 건넌 인간미를 느낀다. 우리 시대의 해학과 웃음을. ㉠
996	독서광	비상을 꿈꾸는 인간은 아름답다. 그 뒤에 감춰진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 ㉡
995	갈손이	이상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존재한다. ㉢
994	가랑비	너는 나만의 사랑이어야 한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
993	황톳길	시대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의 씨앗을 뿌린다. 서두르지 않는 몸짓으로. ㉤
⋮	⋮	⋮

[1] 2 3 4 5 6 7 8 9 10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영과라치' 제도에 대하여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여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개념 및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과라치'는 영화의 '영'과 파과라치의 '과라치'를 합한 조어(造語)로, 근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영화 예매권 2매나 현금 1만 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화 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영화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실시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불법 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 업계와 Video, DVD 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OECD 평균 영화 수입 구조는 극장과 부가관관 시장 비율이 30 : 70인데 반해, 한국은 75 : 25로 심각한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됨. ○ 전 국민의 25.8%가 불법 파일로 영화 감상을 한 적이 있고, 작년에만 불법 영화 파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에 이룸.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과라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 영화 파일 불법 공유에 대한 일부 누리꾼들의 심각한 불감증. ○ 영화 파일 불법 공유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지 않음.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과라치' 제도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광고 ㉡. 양질의 영화 제작을 위한 합리적인 체제 구축 ㉢. '영과라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영화 파일 불법 공유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누리꾼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학습 만화 열풍'과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주제문 : 학습 만화 열풍의 확산 어디까지 왔나 ㉠

I. 서론 : 학습 만화 열풍의 실태

II. 본론

1. 학습 만화 열풍의 원인

가. 학습 만화의 매출 증가 ㉡

나.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 확산

2. 학습 만화의 긍정적인 측면 ㉢

가. 책에 대한 친밀감 조성

나. 참신한 내용 구성으로 흥미 유발

3. 학습 만화의 부정적인 측면

가. '만화가 아닌 책'의 기피 현상 증가 ㉣

나. 명작을 만화로 각색하면 모두 명작이라고 인식

다. 제작자의 상업성·오락성 추구로 인한 폐해

4. 해결 방안 ㉤

가. 균형 있는 독서를 위한 독서 지도

나. 상업성·오락성에 대한 시민의 감시 활동 강화

III. 결론 : 학습 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독서 문화 형성의 필요성 촉구

- ① ㉠ :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학습 만화 열풍에 대한 진단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로 교체한다.
- ② ㉡ :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서론' 항목으로 옮긴다.
- ③ ㉢ : 하위 항목으로 '이해력 및 상상력 신장'을 추가한다.
- ④ ㉣ : 'II-3' 항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 : 하위 항목으로 '원전에 충실한 학습 만화 제작'을 추가한다.

12.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 유산소성 운동이란 운동을 할 때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한다. 이러한 유산소성 운동의 목적은 심폐의 기능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체의 큰 근육을 장시간 사용하는 운동 형태를 취해야 ㉢함으로 달리기, 줄넘기 등 강도가 낮고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적합하다.

유산소성 운동 시간은 건강, 체력, 칼로리 소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포함하여 2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운동 빈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보자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그 뒤 적응이 되면 주당 5회 이상으로 늘려나간다. 이때에는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실시하여 그 ㉤회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

- ① ㉠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 '운동한다'를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로 고친다.
- ② ㉡ : 문맥과 어울리도록 '증진'으로 바꾼다.
- ③ ㉢ : 앞절이 뒷절의 이유나 원인이기 때문에 '하므로'로 고친다.
- ④ ㉣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⑤ ㉤ :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횟수'로 고친다.

13. <보기>의 음운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또는 서로 동화되어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가)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나)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가)로 보아, '국민'이라는 단어는 [중민]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가)를 바탕으로 하면, '손을 잡는 엄마'에서 '잡는'은 [잡는]으로 읽어야 한다.
- ③ '난로'를 [날로]로 발음하는 것은 (나)의 적용을 받은 결과이다.
- ④ (나)의 [붙임]을 고려하여, '감기를 앓는 동생'에서 '앓는'은 [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은 (나)의 경우가 두 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구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동음이의어 : 발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것.
- 다의어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의미상 연관성은 있지만 두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것.

- ① '배를 타다', '배를 먹다', '배가 부르다'에서 '배'는 동음이의어군.
- ② '감다'라는 단어는 '미리를 감다'와 '눈을 감다'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군.
- ③ '먹다'는 '밥을 먹다'와 '숨이 물을 먹다'의 경우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으면서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 다의어군.
- ④ '가볍다'는 '가볍고 단단한 그릇'에서는 무게가 적다는 뜻이고, '가벼운 생각을 하지 마라'에서는 경솔하다는 뜻이므로 동음이의어로 보아야겠군.
- ⑤ '귀'는 '사람의 귀'를 지칭할 때와 '거울의 한 귀가 깨지다'에서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를 의미하는 '귀'가 있으니 이 경우에는 다의어로 보아야겠군.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퀘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채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이용악, '다리 위에서' -

* 장명등 :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이면 켜는 유리등.

(나) 우리 집안 아낙네와 가시내들과

가운데오촌네 집 뒷방에 모였다.
가마니틀 아래
큰집 고모 오복녀 테러다가
도시개떡 해서 나눠 먹었다.

㉡ 간도가 어디인가

간도로 가는 오복녀.

도시떡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울음바다 이루어서
집안 가시내들도 울음바다 이루어서
동네가 떠나가는데
누가 나서서 말리지도 못했다.

간도가 어디인가

그렇게 울고 나서

다음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큰집 막내오촌 따라 간도로 가버린 뒤

거기는 오줌 싸면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어서

활이 되어 걸리는 추운 곳이라지.

거기 가서 어찌 사나

그 어여쁜 오복녀 고모.

웃으면 오목하니 불우물 쌍으로 열리는 고모

자주고름 접은 가슴 오복녀 고모.

이 ㉢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라

가장 많은 눈물 가지고 간 고모.

- 고은, '큰집 고모' -

(다) 아버지 비 속으로 가신다. 시간의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날의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지는 텅 빈 ㉣ 골목길로

아버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의 비 그쳐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화안한 그 꽃밭 뭉개며 내 마음의 어둔

그림자로 우뚝 서 계시는 아버지

애야,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길 없이 쏟아지는 잠과

잠의 깊은 늪골을 비집고

비가 온다 어느새

한 세상 비 속으로 저무는데

밥과 ㉤ 밥으로 이어지는 중년을 흔들며 깨우며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저는 녹스는 채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칼날의 시간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여

아직도 식지 않는 증오 서리처럼 흐리는 창 너머로

아버지 비 속으로 걸어가신다.

- 김명인, '비 속의 아버지' -

15. (가)~(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지난날을 통해 현재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서는 어린 시절의 일을 고백하듯 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인물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다)에서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그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16.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
- ② '풀벌레 우는 가을철'은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 주는 것 같아.
- ③ '바람이 거센 밤이면'에서 화자의 가족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화자의 집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숫집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
- ⑤ '어른처럼 곡을 했다'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어.

17.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을 구체화시켜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인 인물의 이름을 통해 힘겨운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서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18.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과 아버지가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② 등장 인물은 중년의 사내로 설정하여 아버지를 추억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 ③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 ④ 이야기의 시작과 끝의 상황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서사 구조의 완결성'을 갖춘다.
- ⑤ 시점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한다.

19. ㉠ ~ ㉡에서 **어머니**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보기> —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 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차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심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 겨울 판화(版畵) 1' -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금속 공예 역사의 시작은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원전 약 10세기 즈음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철기 시대를 거쳐 삼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술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금으로 된 신라의 장신구들은 문양이 정밀하게 새겨져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서기』에는 신라를 '눈부신 황금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에 딱 맞는 유물이 바로 금으로 만든 허리띠이다. 이 허리띠는 금관보다도 두세 배나 많은 금을 ㉠ **들여** 만들었는데, 풀잎 무늬를 새겨 넣고 그 아래로 여러 줄의 드리개*를 길게 늘어뜨렸다. 드리개 끝에는 약통이나 물고기, 숫돌, 족집게, 굵은옥, 손칼, 살포** 등의 도안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래 허리띠에 물건을 주렁주렁 매달고 생활하는 방식은 북방 유목 민족의 풍습이었다. 그들은 손칼이나 약통 등 평소 즐겨 사용하던 물건을 매달고 다녔는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 후 원래 가지고 있던 실용성은 사라지고 비실용품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식품들이 부착된다. 이 장식품들 가운데 약통은 질병의 치료, 굵은옥은 생명의 존귀함을, 물고기는 식량을, 살포는 농사를 나타내며, 숫돌과 족집게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를 나타낸다. 허리띠의 주인공들이 당시의 왕이나 계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장식품들에는 그들이 관장했던 많은 일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장식품들이 부착된 허리띠는 평소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약하다. 이들 허리띠를 의식용이나 장례용품으로 간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금으로 만든 허리띠의 경우 신라 고분에서 발견될 때는 왕이나 왕비의 허리춤에서 마치 황금빛 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화려하게 착장된 채 출토된다. 이 금제 허리띠는 얇게 금판을 오리고, 좌우 대칭으로 문양을 꾸미거나 풀잎 무늬를 뚫어 장식하여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 이는 현세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후의 안식처인 무덤 속으로 자신의 권세와 부를 그대로 가져가려 한 신라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재질의 허리띠를 착용했다고 한다. 주로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는데, 고분에서 출토될 때에는 천과 가죽 부분은 모두 찢어 없어지고, 표면에 부착하였던 금속품인 허리띠 장식들만 출토된다. 허리띠 장식을 금속으로 꾸며 사용한 시기는 내물왕 때부터인데, 북쪽의 고구려나 선비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시작은 고구려나 선비족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차츰 신라화 되어 매우 화려해진다. 5세기에는 주로 인동초를 간략화한 풀잎 무늬를 표현하였고, 이 장식은 약 100여 년간 널리 유행하다가 6세기 초 신라의 사회 변화와 함께 점차 소멸되어 간다. 율령 반포를 계기로, 국가 제도와 관리들의 의복 제도가 정비되면서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이 대거 생략되고, 실용적이면서 간소한 구조의 허리띠 장식만 남게 된다. 그 후, 허리띠 장식은 왕족의 전유물로만 쓰이지 않고, 관리들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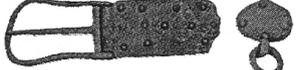
이렇듯 금제 허리띠 하나에서도 신라인들의 화려한 문화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 **금제** 허리띠는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다른 황금 유물들과 함께 신라의 찬란한 문화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 드리개 : 매달아서 길게 늘어는 물건.
** 살포 : 눈에 물꼬를 뜨거나 락을 때 쓰는 삼 모양의 농기구.

20.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상호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통시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⑤ 대상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대상이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p>5세기 후반 금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p>
(나)	 <p>6세기 초반 은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p>
(다)	 <p>7세기 초반 동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p>

- ① (가)와 (나)의 무늬가 다른 것으로 보아 화려했던 허리띠 장식의 문양이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와 (다)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것에서 의식용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겠군.
- ③ (가)와 (다)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보아 허리띠 구조가 복잡한 것에서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와 (다)는 띠고리와 띠꾸미개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허리띠 주요 재질인 가죽이나 천이 썩어 없어진 것으로 짐작되는군.
- ⑤ (가)에서 (다)로 재질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허리띠 장식의 사용자층이 관리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누님은 손톱에 봉숭아 물을 곱게 들었다.
- ② 나는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로 들여 놓았다.
- ③ 고모님께서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셨다.
- ④ 집 안에 벌을 잘 들이기 위해 정원의 나무들을 잘라 냈다.
- ⑤ 선배들은 신입생을 자기 동아리에 들이려고 홍보를 하고 다녔다.

23. ㉡에 드러난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권세와 부에 초연한 신라인들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보여 주려고
- ② 금제 허리띠를 만든 신라인들의 자부심이 비교적 컸음을 보여 주려고
- ③ 신라인들의 금제 허리띠가 문화 예술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 ④ 허리띠 장식의 화려한 풀잎 무늬를 통해 신라인들의 자연 친화 사상을 보여 주려고
- ⑤ 신라인들의 디자인 장식은 고구려나 선비족의 수준을 모방하는 정도였음을 보여 주려고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 신선(金神仙)의 이름은 홍기(弘基)이다. 열여섯에 아내를 얻어 한 번 관계하여 자식을 얻은 후 다시는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는 벽곡(辟穀)*을 하며 면벽좌선(面壁坐禪)**을 수년 간 하더니, 어느 날 몸이 홀연히 가벼워졌다. 이후 나라 안의 유명한 산들을 두루 다녔는데, 항상 수백 리를 간 후에야 아침인지 저녁 인지를 살폈다. 오년 만에 한 번씩 신발을 갈아 신고 험한 길을 만나면 발걸음이 더욱 민첩해졌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옷을 걷고 물을 건너거나 조각배로 건너는 것은 다만 나의 갈 길을 더디게 만들 뿐이야.”

라고 했다.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오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도 부채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

나는 일찍이 우울증이 있었다. 듣자하니 ‘신선의 방기(方技)***가 어찌면 병세에 효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기에 더욱 그를 만나고 싶어졌다. 그래서 윤생(尹生)과 신생(申生)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몰래 그를 찾았으나, 십여 일 간 한양성을 뒤졌어도 그를 찾지 못했다. (중략)

나는 그때 윤생(尹生)이 힘써 찾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신생(申生)도 수십 집을 방문했으나 그를 찾지 못하고 비슷한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마도 홍기의 나이는 백여 세는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거든.”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 홍기는 열아홉에 처를 얻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겨우 약관(弱冠)이잖나? 그러니 홍기의 나이는 아마 십 살 정도 되었을 거야.”

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김 신선은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 벌써 수십 년이나 되었네.”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A] “껌껌한 바위 구멍 속에 어떤 물건이 반짝반짝하더군.”

라고 하자, 다른 이가 대꾸하기를,
“그게 바로 그 노인의 눈빛이야. 그 산골짜기에서는 가끔 긴 하품 소리가 들리곤 하지.”

라고 했다.
실제로 김홍기라는 사람은 ‘다만 술 마시기를 좋아할 뿐, 술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을 빌려서 행세할 뿐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또 동자(童子) 복(福)이를 시켜 그를 찾으러 보냈다. 끝내 찾지 못했는데 그 해가 계미년(癸未年)이었다.

다음 해 가을 나는 동해로 여행을 떠났다. 해질 무렵 단발령(斷髮嶺)에 올라서 금강산을 바라보았다. 봉우리 수가 일만 이천이라고 하더니, 그 경치는 듣던 대로였다. 산에 들어가니 많은 단풍나무가 마약호로 한창이고, 감탕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등은 모두 서리를 맞아 노랗고, 삼나무와 노송나무는 더욱 푸르고, 그밖에도 푸른 나무들이 매우 많았다.

산중의 온갖 기이한 나무들은 그 잎들이 모두 노랗고 붉은데, 그 경치를 감상하다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산중에 기이한 스님이 있어 도술을 할 수 있다던데,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만 듣자하니 선암(船庵)에 벽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남(嶺南) 선비’라고들 부르지요.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선암까지 이르는 길은 몹시 험해서 그곳에 다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장안사(長安寺)에 묵으며 여러 스님들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먼저 스님이 대답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벽곡을 하는 사람은 백 일을 채우고 떠나는데, 지금은 거의 구십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매우 기뻐다. 그가 곧 신선이라고 생각하니, 밤에라도 일어나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음날 아침 진주담(眞珠潭) 아래에서 같이 놀기로 한 사람들을 찾아 오랫동안 살폈지만, 만나기로 한 시간 내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찰사(觀察使)가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다가 산에 들어와 여러 절간을 돌아다니며 노는 것이었다. 수령들 모두 모임에 참석해 장만한 요리를 전하니, 매번 나가 놀 때마다 따르는 스님 수가 백여 명은 되었다.

선암으로 가는 길은 너무 험준해서 나 혼자서는 갈 수 없었으니, 늘 영원(靈源)과 백탑(白塔)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애를 태웠다. 때마침 비가 오랫동안 와서 산중에서 머물다가 옛새끼가 되어 선암에 갈 수 있었다. 선암은 수미봉(須彌峰) 아래에 있는데, 내원통(內圓通)으로 가는 길을 이십여 리 쯤 따라가니 나왔다. 천 길이나 되는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고 길이 끊어져 쇠사슬을 잡고 공중에 매달려 올라가야만 했다. 그곳에 이르니 빈 들에는 새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긴 결상 위에는 작은 구리 부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만 신 두 짝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운한 마음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두커니 서서 들에 놓인 신발을 바라보다가 암벽 아래 이름을 새기고 탄식하며 떠났다. 그곳에는 늘 구름이 둘러 있고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仙)이란 산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도 하고,

[B] “산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선(仙)이야.”
라고도 한다. 선(僊)^{****}이란 선선(僊僊)히 가볍게 공중으로 치켜든다는 뜻이니, 벽곡하는 자가 반드시 신선은 아니다. 그는 단지 울울(鬱鬱)히 뜻을 얻지 못한 자일 뿐이다.

- 박지원, ‘김신선전’-

* 벽곡(辟穀) : 곡식은 안 먹고 술·대추·밤 등을 조금씩 먹고 사는 일.
** 면벽좌선(面壁坐禪) :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참선(參禪)하는 수행(修行).
*** 방기(方技) : 술법, 방법과 기술.
**** 선(僊) : ‘역시 신선’이란 뜻.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탐문 형식을 통해 인물의 실체를 찾아가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다.
 - ③ 의견의 절충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 ④ 직접적 장면 제시를 통해 대상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작품 내의 시점 변화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5.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추론했을 때,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 < 보 기 —

지금 내가 복용한 인삼이 과연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어 몸을 가볍게 하여 멀리 날고 구름 속으로 삼신산을 노닐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식물들을 돌보지 않고, 또 따르는 벗이 없다면 무슨 아름다운 흥취가 있겠는가? 비록 잠시 안기생(安期生)과 적송자(赤松子)를 만나 도끼 자루 썩을 만큼 재미있다 하더라도, 또한 하루하루를 비록 영지를 먹는다 하더라도 늘상 먹는 홍시와 어찌 같을 수 있으랴.

- ① 양반들의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려고
 - ② 양반 계층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비판하려고
 - ③ 당대의 봉건적 신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려고
 - ④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양반의 태도를 비판하려고
 - ⑤ 양반들의 도덕적인 책임 의식의 부재를 비판하려고
26. 위 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그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 보 기 —

ㄱ. ‘김 신선’이 밥을 먹지 않으며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유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린다.
ㄴ. 우울증 병세의 효험을 얻기 위해 김 신선을 수소문하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린다.
ㄷ. 금강산에 가서 기이한 선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 ‘나’의 조급한 심정과 반가움이 드러나도록 그린다.
ㄹ. 선암에 이르는 길이 험하여 혹시나 ‘나’가 선선을 만나지 못할까 초조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린다.
ㅁ. ‘나’가 시기를 놓쳐 김 신선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린다.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27. [A], [B]에 나타난 ‘김 신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어떤 이’들의 간접적 평가가, [B]에는 서술자의 직접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어떤 이’들의 악의적 평가가, [B]에는 서술자의 호의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어떤 이’들의 이기적 평가가, [B]에는 서술자의 이타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 ④ [A]에는 ‘어떤 이’들의 부분적 평가가, [B]에는 서술자의 종합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어떤 이’들의 단경적 평가가, [B]에는 서술자의 유보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업 사회는 혼락 공동체의 특징적 요소인 지역성, 사회적 상호 작용, 공동의 결속감 등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재생산되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전제 조건이었다.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고루 갖추고 있는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명칭이었으나 현대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회구와 열망은 본래적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운동을 시도해 왔다.

도시 공동체는 도시를 기본 단위로 도시의 주거·직장·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자원, 체도가 사람이 사는 터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로서 자연 발생적 공동체가 아닌 '의도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도적 공동체' 가운데 ㉠ 코뮌(commune)은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일정한 테두리 속에서 일상적 상호 작용을 하며, 정서적으로도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 코뮌은 생산물과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공동 분배·관리하는 공산제적 성격의 집단을 그 전형(典型)으로 하며, 코뮌의 참여자들은 애초부터 어떤 이념 기치 아래 자발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코뮌에서는 모든 경제 행위와 인간 관계, 문화 활동 등 생활의 전 영역을 공동으로 해결하므로 주거 공간과 노동 조건 같은 삶의 자족적 시스템이 창출(創出)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코뮌 같은 공동 생활의 자족적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한 상호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동의 이해 관계를 발견하기가 비교적 쉬운 기존의 물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 공동체적 요소가 강한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화된 세력을 구성하려는 시도(試圖)를 한다. 또한 생활의 영역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사 한 두 가지의 공동 이해(利害)를 기반으로 단일한 목적이나 이념을 갖는 사람들로 목적 지향적 집단인 '협동 조합'을 구성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도시에서 시도되는 공동체의 성격을 보면 공동체적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組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테면 아파트와 같은 ㉢ 경주(定住) 공동체는 구성을 시도하는 시점부터 거주 시설의 집단화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지역성 즉, 공간 근접성은 높지만 구성원들의 목적 의식이나 가치관의 동질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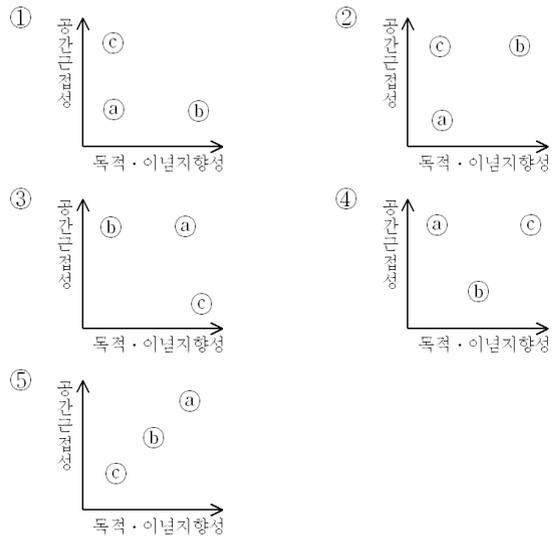
협동 조합은 일단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유한 이념을 확산하고 심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이념으로 뭉친 결사체보다는 덜 하지만 뚜렷한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성은 참여자들의 삶의 ㉣ 터전이 밀접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뮌의 경우는 생활의 대부분을 긴밀하게 공유하므로 지역성과 이념성이 모두 높은 반면, ㉤ 이념적 결사체는 공간 근접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동체 운동은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적 동질화를 꾀하는 한편, 참여자들의 관심과 사고 범위가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이웃, 지역 사회, 시민 사회 전반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의 의식의 발전,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공동체 운동은 매우 더디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를 기약한다고 할 수 있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코뮌'은 삶의 자족적 시스템을 갖춘 의도적 공동체이다.
- ② 공동체 운동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③ '협동조합'은 단일한 이념과 목적을 토대로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중시한다.
- ④ 농업 사회는 공동체의 요소가 구현되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졌다.
- ⑤ '도시 공동체'는 실제로 공동체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유행화하기가 어렵다.

29.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30. ㉡의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이 언론사에서 주최한 봄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원에 모였다.
-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다.
- ③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치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 ④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서 시민 단체에 모였다.
- ⑤ 아파트 주민들이 옥아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 자녀 바로 기르기 모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31.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터전01
 ㉠ 집터가 되는 땅. ㉡ 집집마다 터전이 넓었다. ㉠
 자리를 잡은 곳. ㉢ 경주는 신라의 옛 터전이었다. ㉢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다. ... ㉣
 일의 토대. ㉤ 민주주의 터전을 다지다. ㉤

터-전02
 ㉠ 텃밭. ㉡ 뒤 곁에 터전을 일구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에서는 2,500년 전에 뽀주지나 중기의 치료제로 곰팡이가 핀 두부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요법으로 상처에 된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된장에 들어 있던 항생 물질의 효력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서양에서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이전에 ‘한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는 ‘항생’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응용은 부족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백 종에 이르는 항미생물제제 중에는 실제로 자연계에 살고 있는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이와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나 에탐부톨(ethambutol)과 같은 약은 합성된 것으로,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항생제로 보지 않는다.

인간이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세균에 작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이라고 불리는 층이 있고, 그것을 생합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포벽 바깥에 있는 당단백질을 트랜스펩티데이즈(transpeptidase)라는 효소가 연결해 주는데, 이 효소의 작용을 페니실린이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음으로써 세균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균의 용해에는 자가분해효소라는 세균의 효소가 관여하는데,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자가분해효소 저해제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그 세포가 신속하게 부서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은 페니실린이 작용하여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어도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돌연변이 세균이 분리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페니실린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하여 페니실린 분해 효소로 페니실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 세균을 페니실린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에는 전혀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면 해결된다.

우리가 몸에 항생제를 직접 투여하게 되는 경우는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경우이다. 감기 초기에는 감기에 걸리게 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냥 두고 두통, 콧물, 고열 등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진통제, 비충열제제제, 해열제 등을 쓰게 된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 목 주변에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의사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곤 한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항생제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항생제의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항생제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수많은 연구자와 제약 회사들은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찾기 위하여 지구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제까지 확보해 온 우세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세균이 죽느냐, 인간이 죽느냐, 조물주조차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만든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에서 푸른곰팡이가 생산한 페니실린 미사일을 병균의 퇴치에 사용하는 지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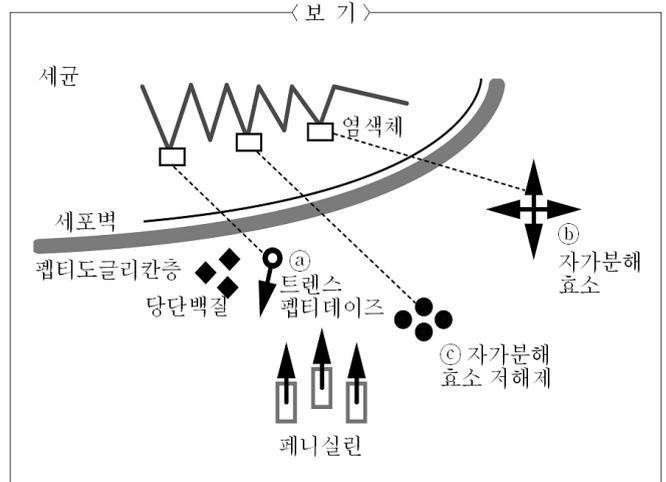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오래 전부터 항생 물질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 ②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항생제는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있다.
- ④ 인간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 ⑤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은 것은 항생제로 보기 어렵다.

3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수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작용 과정을 규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4. [A]를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세포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층과 당단백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페니실린이 ㉠의 작용을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다.
- ③ 페니실린은 내성을 지닌 세균에 대해서는 ㉠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 ④ 페니실린은 돌연변이 세균이 출현하면 ㉡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다.
- ⑤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를 감소시켜 세균이 용해되도록 한다.

35. 위 글을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인 국내 항생제 처방률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의 두 배에 이르고 항생제 내성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의대 연구팀이 축농증과 폐렴, 중이염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항생제인 페니실린 내성 실험을 한 결과, 외국은 내성률이 0~5.5%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80% 정도에서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 ○○일보 -

- ① 페니실린 사용 방법 외에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겠군.
- ②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해야겠군.
- ③ 페니실린의 효과를 과대평가(過大評價)하면 낭패를 보겠군.
- ④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더니, 페니실린을 적절하게 써야겠군.
- ⑤ 아무리 좋은 항생제라도 병균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긴 어렵겠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입에서 그 집을 사자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 달갑잖은 표정이었다. 직접 가서 집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로 표정이었고, 형 역시 못마땅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다. 여러 해를 여기저기 잠깐씩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 전에 우리가 살던 크고 좋은 집은 아버지 친구 되는 사람한테 어처구니없이 빼앗겨버렸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아버지의 고향 친구 심씨였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한참 빚쟁이들한테 몰리고 있을 때 그 심씨가 나타나서 모책을 일러주었다. 친구의 권고에 따라 아버지는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내주었다. 집을 심씨의 소유로 위장하여 그거라도 건져보자는 속셈이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충고해주는 고향 친구가 아버지한테는 친형제만큼이나 살가웠을 것이다. 도장을 넘겨주면서 아버지는 심씨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했다. 심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다.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나) 형은 학교 성적을 집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 일찍부터 가족들 앞에서 세도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적당히 이용할 줄 알았다. 대청을 차지하고 나서 형은 완전히 ㉢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었다. 판자벽에 뚫린 알량한 창문을 통하여 창고와 창고 사이 공지를 오가는 가난한 이웃들을 내다보며 까닭 없이 불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차가운 마룻바닥에 모로 누워서 벽에다 깨알 같은 낙서를 적고 있거나, 아니면 집 모퉁이에 와서 소변을 보는 주경뱅이를 붙잡고 꼬치꼬치 시비를 가리는 잠깐 잠깐을 제외한 방과 후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와 공상으로 보냈다. ㉣ 책상다리를 한 형이 소반 위에 위인전 같은 걸 펴놓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형이 너무도 대견해서 아버지는 밤이 이슬해지면 형의 방에 꼭 간식을 넣도록 어머니에게 일렀다. 살림

이 자꾸 기우는 형편인데도 형의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아버지가 다 들어주었다.

(다) 최고장(催告狀)이 우리에게 판잣집의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었다. ㉤ 동사무소 직원이 나눠주고 간 그 종이쪽지에 그런 내용의 글말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철거 이유를 '무허가'와 '도시 계획 저촉'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해당 사항을 동그라미로 친절하게 표시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양쪽에 다 걸린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해석은 농담을 했다. 잘못하다간 집이 두 번씩이나 철거당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최고장은,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철거를 단행할 작정임을 명백히 하고 철거기간도 시한부로 못박아놓았다. ㉥ 가짜 꿀을 만드는 강씨네와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도시 계획에 저촉되든 무허가 건물이든 간에 동네에서 안 걸린 집이 별로 없었다. 최고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어머니는 많이 참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농담을 하는 대목에 와서 분이 폭발해버렸다. 어머니는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혈령이로 구는 아버지를 무섭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라) 인부들은 벽마다 구멍을 뚫어 짐체를 좌우로 관통시키려 하고 있었다. ㉦ 이때 비어 있는 줄만 알았던 우리 집 속에서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 작업이 중단되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진 가운데 우리는 고함 소리를 다시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잔뜩 취했을 때의 우리 아버지 음성이었다. 작업 책임자와 어머니가 동시에 달려 들어가 안방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안에서 문고리가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집과 함께 갈러 죽을 테니 염려 말고 어서 기둥을 넘어뜨리라고 소리쳤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로 사정을 했다. 작업 책임자도 이전 다 소용없는 일이니 어서 문이나 열라고 거듭 타일렀다. 그러나 ㉧ 아버지는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로 오후 한나절을 꼬박 버티는 놀라운 인내력을 보였다. 누구든지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자살해버리겠다고 틈틈이 위협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방문이나 벽을 부수려는 인부들을 멀찌막이 물리칠 수 있었다. 작업 책임자는 ㉨ 마지막 수단으로 좀 유치한 속임수를 썼다. 그는 열을 쉼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야 죽든 말든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홉까지 쉰 다음 그는 옆에 있는 인부한테서 커다란 쇠파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열을 쉼과 동시에 기둥을 한번 팽 때렸다. 그러자 방문이 화다닥 열리면서 아버지가 혈레벌떡 뛰어나왔다. 아버지는 뒷주머니에 소주병을 뒀어 차고 있었다.

(마) 건설국 창고 안에서는 호롱불을 가운데 하고 마을 아낙네들이 끼리끼리 둘러앉아 앞으로 살아갈 일을 땅이 꺼지게 걱정하고 있었다. 무슨 설움 무슨 설움 해도 집 없는 설움이 으뜸이라며, 창고마저 비워야 될 날이 언제일지 누가 아느냐며 아낙네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푸념을 깔았다. 호롱불이 위로 비쳐 광대뼈와 콧잔등만이 우뚝 솟아 보이는 ㉩ 음산한 얼굴들이었다. 강당만큼이나 넓고 높은 창고 안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너울너울 춤추는 유령들의 화합을 호롱불이 끼치는 그 시간까지 주욱 지켜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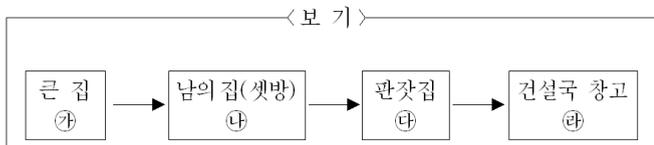
[A] 형이 한밤중에 교회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종을 치며 소동을 벌인 것은 집을 잃은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비치는 플래시라이트 속에서 형은 눈자위를 하얗게 뒤집어 칸 채 대롱대롱 매달려 종을 치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얻어맞고 걸어 채이고 떼밀려도 형의 몸뚱이는 줄의 일부인 양 늘어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미친 듯이 울리는 종소리가 어두운 밤하늘 가장자리를 찾아 언제까지고 퍼져나갔다.

탱그렁 탱그렁 탱그렁 탱그렁.....

-윤홍길, '집'-

3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특정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최고장', '강제 절거 단행', '폭발'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서술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호통불'을 통해 인물들의 불안한 심리와 비극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37.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의 변화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아버지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공간이다.
- ② ㉡는 정착에 대한 가족들의 욕구가 하강하는 공간이다.
- ③ ㉢는 가족들이 한시적으로 정착하였던 공간이다.
- ④ ㉣는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린 임시 거처이다.
- ⑤ ㉠에서 ㉣로 공간이 변화되면서 한 가정이 몰락하고 있다.

38.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보 기 >

관찰자 시점의 소설에서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9. <보기>는 위 글에 삽입된 우화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A]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형이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말대가리란 별명이 붙은 주일학교 반사가 있었다. 그가 주일마다 들려주는 동화 가운데 종을 치는 늙은 말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다.

기사를 도와 큰 공을 세우고 개선한 백마가 전쟁 당시의 상처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죽어가도 기사는 자기 말을 돌보지 않고 굶주리게 내버려 둔다. 그러나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리던 성주님이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종을 쳐 호소할 수 있도록 성문 앞에 높은 종탑을 세워 놓았다. 결국 마구간을 빠져나온 백마가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성문 앞까지 와서 배고픔에 못 이겨 종탑을 감고 올라간 쉼뉘를 뜯어 먹다가 줄을 건드려 종이 울리게 된다. 그러자 성주님이 친히 나와 사정을 자세히 알아 본 다음 말을 학대한 기사에게 큰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였다.

- ① 형이 종을 의도적으로 울린 것이라면, 백마는 우연히 울린 것 같아.
- ② 형이 집을 잃은 상처와 백마가 지니고 있는 상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
- ③ 두 이야기가 서로 이질적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주제가 서로 통하는 것 같아.
- ④ 딸고만이 아버지와 자기 말을 돌보지 않는 기사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 ⑤ 형이 안고 있는 억울함도, 말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아.

40. ㉠~㉤에서 <보기>의 깨알 같은 꿈이 지닌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부르도자는 쉼새없이
내 가난마저 죽이면서
내 이웃들의 깨알 같은 꿈마저 죽이면서
눈물을 모으고 귀를 모았다.
화려한 소식이 곳곳에 파고들어
이마를 치들었다. 세상에 대하여
나무라고 후회하고
나는 또 무릎 꿇고 빌고 울었지만
부르도자와 바람은 막무가내,
결결대는 큰 두 다리,
황량한 배반, 무책임이며 자랑이며 싸움이었다.
아프다는 소리도 죽음은 내지 못했다.
이 시끄러운 꿈들의 피, 잠이 들면 그대로
시간은, 시간을 낳고 있었다.
어둠이 깨우치는 것도 어둠,
불행은 끝끝내
나의 마지막 의지까지 내려놓았다.

- 이성부, '철거민의 꿈'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어릴 적 환상의 한 부분을 점차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위그(WIG, Wing-In-Ground)선'이 그 가운데 하나다. 위그선은 날개로 수면 위에 떠서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다. 이 배가 처음 개발된 것은 1960년대이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카스피 해에서 시속 550km로 움직이는 괴물체를 발견한 1976년의 일이다. 이 괴물체는 뒤에 소련의 위그선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위그선을 '바다 괴물'이라고 불렀다.

위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 위에 낮게 떠서 비행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날개 끝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유동적(流動的)인 소용돌이 현상인 와류(渦流)가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날개가 전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결국 선체는 큰 저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면 가까이 날아갈 경우 날개 끝에 생기는 와류가 현격히 줄어든다. 수면과 날개 사이의 간격이 좁아 와류가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그선처럼 수면에서 5m 이내로 조금만 떠올라 날아가는 경우 날개가 받는 양력, 즉 상승력은 공중을 비행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배는 수면에 닿아 있어 이로 인해 생기는 선체 저항을 피할 수 없지만, 위그선은 이런 선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중 날개로 활주하는 초고속선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처럼 물속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근접할수록 효율이 떨어지지만, 수면 위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향상되는데, 이를 '지면 효과(ground effect)'라고 한다. 위그선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 선체를 수면 위에 띄운 뒤 항공기용 프로펠러 엔진으로 전진한다. 위그선이 물 위를 달리는 항주 속도는 시속 100km에서 최고 500km에 달한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나 초고속선에 비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해상에서 바로 활주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안의 작은 섬이나 해안의 작은 도시처럼 공항 시설을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그선이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위그선에 관한 가장 큰 난제는 파랑(波浪) 중 ㉠이착수(離着水) 문제다.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효율성이 높은 부양 방식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파랑이 있는 수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착수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체 형상 및 제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와는 달리 해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부 선체의 구조 강도가 항공기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계돼야 한다. 즉,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 되어야 위그선이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금속 재료를 사용하고 강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신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그선은 항공기와 운항 영역 및 고도가 다르므로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항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비들이 운항 특성에 맞게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가(船價)가 적절한 가격대로 형성되어야 실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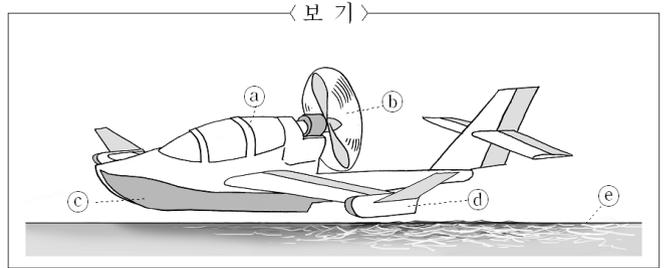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함은 물론 위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운항 선사와 지방자

치 단체, 외국 기관들도 처음부터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 최종 실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위그선과 항공기는 운항 영역 및 고도에 차이가 있다.
- ② 위그선은 날개가 있는 배로 일반적인 배보다 속도가 빠르다.
- ③ 위그선은 초고속선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 ④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 ⑤ 위그선과 초고속선은 수중 날개가 있어 비슷한 속력을 낼 수 있다.

42. 위 글을 바탕으로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항공기의 구조와 비슷하므로 실용화를 위해 항공기에 쓰이는 소재를 써야겠군.
- ② ㉡는 와류를 이용하여 배를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군.
- ③ ㉠은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겠어.
- ④ ㉡가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되어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군.
- ⑤ ㉡에서 파랑이 일어도 위그선의 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겠군.

43.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조합 방식이 ㉠과 다른 것은?

< 보기 >

㉠에 적용된 단어의 조합 기준

- (1) 통합되는 두 단어가 반의 관계에 있음.
- (2)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에서 공통되는 어휘나 요소가 생략됨.

<예> [이수(離水) + 착수(着水) → 이착수(離着水)]

- 이수(離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을 떠나 날아오름.
- 착수(着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에 내림.

- ① 냉온수(冷溫水) ② 장단점(長短點) ③ 등하교(登下校)
- ④ 원근감(遠近感) ⑤ 출입구(出入口)

44.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이착수가 가능한 위그선
- ② 시속 100km~5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그선
- ③ 교각 등과 같은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그선
- ④ 수면과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위그선
- ⑤ 하부선체의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가 가능한 위그선

[45~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칼 구스타프 융(Jung, Carl Gustav)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했다.

의식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신의 유일한 부분이며, 유아기 때 감정, 사고, 감각, 직관의 의식을 통해 성장해 간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에게는 사고가, 어떤 아이는 감정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의식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나는 데 융은 이것을 '자아'라고 불렀다. 자아는 자각하고 있는 지각(知覺), 기억,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며,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면 그것들은 자각될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이 의식의 수준까지 도달되기 전에 자아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수문장(守門將)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아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경험들은 어떻게 될까? 경험할 당시 중요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개인 무의식'이라는 곳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쉽게 의식화될 수 있다.

한편, 융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다. 융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은 선조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내용물을 담은 용기(容器)라는 것이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 했으며, 이것은 많은 세대를 거쳐 반복된 경험들의 축적된 결과이며, 이는 과거 세대의 경험을 재생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아기가 '어머니를 어떻게 지각하느냐'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예비관점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물을 원형(原型)이라고 한다.

원형들 중 사람들의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페르소나(persona) 원형, 아니마 원형과 아니무스 원형, 그림자 원형, 자기 원형이 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이며, 여기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해로운 페르소나는 한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기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 자아는 그 페르소나만 동일시하여 성격의 다른 면은 전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페르소나가 세상을 향한 얼굴, 즉 외면이라면, 내면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을 말하고, ㉡**아니무스**는 그 반대로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말한다. 남자는 여성성을 물려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영향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아니마의 처음 투사(投射)는 어머니에게 행해지며, 아니무스는 아버지에게 행해진다. 융은 개인이 양성적(兩性的) 본성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림자**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으로 친구에게서 결점을 지적당하면 분노를 느끼는데, 이는 친구의 지적을 통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즉 특정인을 미워할 경우 이는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자신의 약점이 특정인에게 투사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의 중심 원형으로 의식 속의 원형들을 조직하고 조화시킨다. 누군가가 자신 및 세계가 조화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원형들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정신은 바위나 나무처럼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45.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분석하여 그 발전 과정을 규명한다.
- ② 사례를 열거하여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낸다.
- ③ 주요 개념들을 구분하여 대상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 관련된 이론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 ⑤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46.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생각'은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받아야 자각된다.
- ② '감각'은 다른 의식의 기능보다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개인 무의식'은 상황에 따라서 자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④ '자아'가 경험들을 의식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경험만 수용한다.
- ⑤ '의식'은 타인과 구별되는 발달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시킨다.

47. **페르소나**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영미는 착한 동생을 항상 귀여워한다.
- ② 영희는 생일 선물을 받고 밝게 웃었다.
- ③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
- ④ 은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했다.
- ⑤ 영철은 반장이 되더니 주위를 의식해 근엄해졌다.

48.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완충기(緩衝器) ② 여과기(濾過器) ③ 계량기(計量器)
- ④ 감지기(感知器) ⑤ 경보기(警報器)

49. ㉠ ~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이성적 감정을 가질 때 작용하는 원형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은 여성이 군인의 길을 선택할 때 여성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원형이군.
- ③ ㉢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싫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원형이겠군.
- ④ ㉣은 핵심 원형이므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원형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이나 ㉡의 원형이 풍부한 사람은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군.

[50~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바람이 문득 불어 청명이 가까우니,
이슬비는 소리 없이 내려 저물도록 개지 않네.
집 모서리 ㉠ 살구꽃은 활짝 피려 하여,
두어 가지 이슬 머금은 채 사람을 향해 기울이다.
春風忽已近清明
細雨霏霏晚未晴
屋角杏花開欲遍
數枝含露向人傾
- 권근, '춘일성남즉사(春日城南卽事)' -

* 청명(淸明): 이십사절기의 하나. 4월 5일 무렵.

(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興)이에 다들소냐.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에서 -

(다) 매화가 필 무렵이면 남도의 백운산 자락 광양군 다압면 심진 윷마을에 가곤 했었다.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옥곡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861번 지방도를 타고 몇 구비를 돌아 북상하면 바른쪽에 심진강이 흐른다. 군대군대 대숲이 있고 청청한 대숲머리에 하얗게 매화가 피어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다.
왼쪽이 백운산 자락인데 다압면(多鴨面)에 접어들면 동네마다 꽃 속에 묻혀 있어 경계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들레에 꽃이 있으면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일지라도 결코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곳 매화의 절정은 단연 심진 윷마을에 있는 '청매실 농원' 언저리다. 요즘은 대형버스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여 있지만 그전에는 겨우 경운기가 오르내릴 정도의 오솔길이었다. 골짜기와 언덕에 수천 그루의 매화가 핀 걸 보면, 아무리 물기가 없는 딱딱한 사람일지라도 매화에 도취되지 않을 수 없다. 기품 있는 꽃과 그 향기의 감흥을 모른다면 노소를 물을 것 없이 그의 인생은 이미 막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 (중략)
강 건너 풍경은 꿈결처럼 아름답다. 심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지리산 자락 하동과 구례이고, 남쪽은 백운산 자락 광양 땅이다. 다압쪽에서 강 건너 북쪽을 바라보면 언덕 위 큰 바위 곁에 울망출망 붙어 있는 집들이 신신이라도 사는 것처럼 사뭇 환상적이다. 또 화개에서 하동읍으로 내려가면서 바라보이는 강 건너 다압쪽 심진 마을은 매화로 꽃구름 속에 묻힌 무릉도원이다. 이 길목에서는 배꽃이 필 무렵에도 안복(眼福)을 누릴 수 있다.
강 건너 풍경은 이렇듯 아름답다. 그러나 막상 강을 건너 그

지점에 가 보면, 저든 삶의 부스리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듯 허상과 실상이 겹쳐 있다. 사물을 보되 어느 한쪽이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꿈은 꿈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지 깨고 나면 허망하다. 그것이 꿈인 줄 알면 거기에 더 ㉢ 엄매이지 않게 된다.
어느 해 봄이던가, 꽃 속에 묻힌 심진 윷마을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터덕터덕 지나가다가, 산자락에 눈에 띄는 외딴 집이 있어 그 오두막에 올라가 보았다. 누가 살다 비리고 갔는지 빈집인데 가재도구들이 여기저기 ㉣ 흩어진 채였다. 언덕에 차나무가 심어져 있고 동백이 몇 그루 꽃을 떨구고 있었는데, 허물어져 가는 벽 한쪽에 서툰 글씨로 이런 낙서가 있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돈을 벌어서 빨리 자전거를 사 주세요? 약속.'
'약속' 끝에다가 하트를 그려 놓았었다. 무심히 이 낙서를 읽고 나니 가슴이 찡했다. 자기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몹시 부러워하면서 아이는 자기 아빠와 엄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가난한 그 집 아빠와 엄마는 이 다음에 돈 벌면 사주마고 달랬던 모양이다.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던 그 집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궁금하다. 아직도 자전거를 갖지 못했다면 그 집 아이에게 이 봄에 자전거를 사주고 싶다.
- 법정, '심진 윷마을의 매화' -

5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 ① 자연과 글쓴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 ② 자연을 예찬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자연에서 살아가는 글쓴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자연과 세속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51. (가)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봄바람'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야.
 - ② '두어 가지'와 '사람'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이슬비'는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시어야.
 - ④ '기울이다'에는 '살구꽃'에 관심을 보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 ⑤ '청명'은 시간적 배경을, '집 모서리'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어.
5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한다.
 - ② ㉠, ㉡은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은 '시간의 멈춤'을 의미한다.
 - ④ ㉠은 화자의 '과거'를 나타내고, ㉡은 화자의 '미래'를 나타낸다.
 - ⑤ ㉠은 화자와 조화되는 대상이고, ㉡은 화자와 동화되는 대상이다.

53. <보기>에서 [새]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 모란꽃만 사랑하여
 ㉡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네.
 누가 이 거친 초야에
 좋은 ㉢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라.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발두렁 ㉤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네.

- 정승명, '석죽화' -

- ① ㉠ ② ㉡ ③ ㉢ ④ ㉣ ⑤ ㉤

54.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황과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해 인과적으로 서술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고어체와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삶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55. (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정리

- 제목 : 섬진 율마을의 매화
- 주제 : 아름다운 봄 풍경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 ①
- 소재 : 봄, 꽃, 빈집
- 공간적 배경 : 다압면 섬진 율마을
- 전개 방식
 - 공간의 이동과 회상의 방식 ②
 - 삽화 형식으로 삶의 애환을 소개 ③
- 표현
 - 상징과 반어 활용 ④
 -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 이미지로 활용 ⑤

56. ㉠,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 | |
|------------|---------|
| ㉠ | ㉡ |
| ① 집착(執着)하지 | 산재(散在)한 |
| ② 구애(拘碍)받지 | 확산(擴散)된 |
| ③ 속박(束縛)받지 | 산적(散積)한 |
| ④ 구애(拘碍)받지 | 산발(散發)한 |
| ⑤ 속박(束縛)받지 | 분산(分散)된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의 소리나 형태는 그 수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 그 수가 무한정이어서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의 형태나 의미가 서로 같고 다른 것을 구분하여, 비슷한 것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단어나 문법을 모형으로 하여 단어를 만들거나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학에서는 '유추(類推)'라고 하는데, 이를 논리학에서는 어떤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특수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형은,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추는 그 과정이 다양한 언어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추는 언어 변화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음운 변화가 일정한 형태 안에서 음절 구조의 변동에 한정된다면, 유추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고쳐진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형태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음운 변화는 자음과 모음, 모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지만, 유추는 아예 음절을 달리하여 음운을 덧붙이거나 완전히 이동시켜 버리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의 변화는 미시적(微視的)인 언어 변화를, 유추는 보다 거시적(巨視的)인 언어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의 본질은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치엄>치음, 일흠>이름, 소곰>소금』과 같이 '-음'꼴로 만들어 가거나, 『호랑>호랑이, 배암>배암이, 남>나비』와 같이 동물의 이름을 '-이'꼴로 만들어 가는 예는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치음』, 『이름』, 『소금』은 『치엄』, 『일흠』, 『소곰』에서 각각 끝음절이 '-음'으로 바뀌는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름씨(명사)』라는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기억하기 편하게 '-음'으로 통일하려는 유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위에 든 동물 이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유추 모형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는 크게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과 계열 관계에 따른 모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암+~이>배암이』와 같은 형태는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배암』 자리에 『호랑』, 『남』과 같은 다른 단어가 올 때 이들 단어 사이에는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로 보면, 기본 문형은 일종의 글의 모형으로 여기에 알맞은 어휘만 넣으면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과 같이 단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려는 경향이 짙은 언어나, 음소 문자를 쓰는 언어의 유형은 이러한 유추에 따른 언어 창조가 가장 알맞다.

아무리 일상적인 형태에서 유추된 모형을 따르는 어휘나 문법 형태소일지라도 말을 직접 사용하는 언중(言衆)이 쓰지 않으면 사어(死語)가 되고 만다. 반대로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작가의 말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사어가 되어 버렸던 ㉠ 『아스라이』가 어느 서정 시인의 시에서 쓰인 뒤로 보편적인 말이 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